

한국고전문학 영어 번역서의 방향 제안

김유미*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영어로 번역된 한국 고전문학 출판물의 수요
 - 1) 미국 대학의 한국 고전 문학 수업
 - 2) 한국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 문학 수업
3. 고전문학 영어 번역서의 구조 분석
 - 1) 소개글
 - 2) 주석 및 참고 자료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듯 한국학 관련 영어 서적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학 중앙 연구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통해 고전 문학 작품의 영역(英譯)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고전문학에 비교하면 한국 고전문학 수업 현장에서는 소수의 연구자와 출판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출판된 영어 번역은 아직까지 대학에서 교재로 널리 쓰이지 못한다. 이에 영어권 학습자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번역출판물의 방향을 *Epistolary Korea: Letters in the Communicative Space of the Chosŏn, 1392-1910,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그리고 *Wrongful Deaths: Selected Inquest Records from Nineteenth-Century Korea*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한국에서 출판된 영어 번역서와 비교해 앞의 세 출판물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소개글의 분량과 방향, 그리고 주석과 참고자료 부분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세 종류의 출판물은 공통적으로 전체 번역 분량의 적게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조교수

는 30%에서 50%까지가 소개글의 분량이며 동아시아 문화 탐구의 맥락에서 한국 전통 시대 서간(書簡), 아담, 판결문을 소개하였고 서양의 유사 장르와 비교하였다. 한편 비교적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풍습, 인물, 한국사 중요 사건은 주석을 통해 소개하였다. 참고 자료로 관직, 행정단위, 연도 표시 원칙, 도량형을 제시해 영어권 학습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 고전문학 영어 번역, 한국 고전문학, 고전문학 영어 교재, 한국 문학의 세계화

1. 들어가는 말

북미에서 널리 이용되는 온라인 구매 사이트 Amazon.com (아마존)에서 중국 문학 (Chinese Literature)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60,000건 이상의 출판물이, 일본 문학은 70,000건, 한국 문학은 50,000건 정도가 검색된다.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듯 과거와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한 숫자이다. 숫자로만 보면 한국 문학 관련 서적은 중국, 일본에 비하여 크게 뒤지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중국/일본/한국 출판물을 언어/아동 학습/문학 관련/기타로 나누어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표 1>은 아마존 검색 결과 상위 100건에 한하여 각 나라별 출판물을 분류한 것이다.

〈표 1〉 중국/일본/한국 출판물의 분류별 숫자

분류	중국	일본	한국
언어	19	22	39
아동 학습	21	9	24
문학 관련	32	34	30
기타	18	35	7
합계	100	100	100

중국의 경우 언어 학습 서적¹⁾이 19건, 아동용 학습 서적 21건, 문학사, 단일 작품집, 작품 선집(anthology)을 포함한 문학 관련 서적이 32건이다. 문학 관련 서적이 100건 가운데 1/3가량을 차지한다. 일본문학으로 검색 되는 상위 100건 중에는 언어 학습 서적이 22건, 아동용 서적 9건, 문학 관련 서적이 34건이다. 한국의 경우 언어 학습 관련 서적이 39건, 아동용 서적 24건, 문학 관련 서적이 30건이다. 한국의 경우 언어 및 아동용 서적의 비중이 높아 중국과 일본의 두 배 가까운 60%이상이다.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문학사, 단일 작품집, 작품 선집을 포함한 한국의 문학 관련 서적은 30건으로 중국 및 일본과 수적으로는 엇비슷하다. 그러나 세부 유형에 따라 분류한 <표 2>를 보면 한국의 고전문학은 중국과 일본의 고전문학과 비교하여, 또한 한국 현대문학과 비교하여도 소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²⁾

<표 2> 중국/일본/한국 문학 관련 출판물의 숫자

분류	세부 분류	중국	일본	한국
문학사	통사	3	3	1
	고전문학	9	5	2
	근현대문학	4	5	1
단일 작품집	고전문학	1	2	2
	근현대문학	8	6	19

- 1) 언어 학습자들을 위해 문학 작품 일부나 전체를 사용한 출판물의 경우 언어로 분류하였다.
- 2) 아마존에서 한국문학(Korean Literature)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세부 분류를 Book으로 하여 대상을 출판물로 한정하였다. 2018년 6월 30일, 7월 5일, 7월 14일 시행한 세 번의 검색을 통해 평균치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미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나 미국에 유통되는 한/중/일 문학 번역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겠다.

작품 선집	고전문학	3	11	2
	근현대문학	4	2	3
합계		32	35	30

중국의 경우 문학사(文學史)에서 고전문학사는 9건으로 근현대 문학사보다 많으며 단일 작품집에서는 근현대문학 단일 작품집이 8건으로 고전 문학보다 많다. 문학사 관련 서적이 총 16건, 단일 작품집과 선집을 합쳐 16건으로 문학사와 작품집 분량은 양적으로 비등하다. 일본의 경우 문학사가 13건으로 고전문학사와 근현대문학사가 비등한 양을 차지하며 단일 작품집은 근현대 문학이, 선집의 경우 고전 문학이 많다. 문학사, 단일 작품집, 작품 선집을 합친다면 일본의 경우 고전문학은 근현대문학보다 5건이 많은 18건이다. 고전문학 작품 선집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타 분류에서 다도, 꽃꽂이, 그림 그리기 등 전통 문화와 관련된 취미 서적이 많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문학의 30건 중 23건이 20세기 이후 근현대문학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중국과 일본의 고전 문학 작품은 대학 출판사를 포함한 다양한 북미의 현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한 작품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작품은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전 문학의 세계화 요구에 따라 한국의 사업단에서 번역을 지원해 주고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과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추진하는 ‘한국고전 100선 번역 대상 도서’가 대표적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현대 작품을 중심으로 도서 번역을 지원하는데 <표 2>에서 본 19건의 근현대 단일 작품집 중 대다수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출판되었다.³⁾ 한국문학번역원의 2017년 4분

기 번역 지원 현황을 보면 장르별 번역 지원에서 현대 작품이 114건, 고전은 12건이다.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고전 번역을 따로 지원하여 현재 장화홍련전, 박씨전, 용재총화, 시화총림, 보한집, 금오신화, 동문선, 열하일기, 파한집, 다산 정약용 시집, 속향전 전문(全文)이나 일부가 번역되었거나 번역 중이다.⁵⁾ 한국에서 출판된 혹은 한국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영어 번역 기(既) 출판물의 숫자로만 본다면 충분한 공급인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 대학 수업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다른 저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현재 북미에서 교재로 쓰이는 한국고전문학 번역서 및 연구서를 보면 Peter H. Lee 와 David R. McCann을 포함한 5명 안팎의 현지 연구자의 저서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학 문헌의 번역 시리즈인 Korea Research Monographs and Transnational Korea⁶⁾는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작품과 연구로서 고전 문학의 입지는 약하다.

교재 수급의 문제는 번역의 유무(有無)뿐만 아니라 시장 논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번역이 이루어져도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현지의 영향력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출판사에서 출판될 경우 홍보와 배포에 한계가 있어 독자에게 접근성이 낮아진다.⁷⁾ 안타까운 점은 번역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고전 문학 작품을 훌륭히 번역

3)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시리즈로 출판되는데, 현대 소설 작품이 주를 이루며 소수의 출판사에 의존하고 있다.

4)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 현황은 다음 링크를 참고
<https://www.ltikorea.or.kr/transtatic.do/>

5) 한국문학번역원 <https://www.ltikorea.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ksps.aks.ac.kr/>

6) Korea Research Monographs.
<https://ieas.directfrompublisher.com/highlights/korea-research-monographs/>

7) 출판사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윤혜준, 「영어권 독자와 한국문학사: 피터 리의 『한국문학사』의 성취와 과제」, 『세계문학비교연구』 27, 2009, 89쪽 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이해에 필수적인 소개글(Introduction) 및 주석을 포함한 배경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수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로 번역된 한국 고전문학 교재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 고전 문학 영어 번역서를 교재로 사용할 학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단락에서는 영어로 한국학 수업을 제공하는 미국과 한국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⁸⁾

2. 영어로 번역된 한국 고전문학 출판물의 수요

1) 미국 대학의 한국 고전 문학 수업

미국 대학에서 한국학은 크기와 분야의 다양성에서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대학의 동아시아 학과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일본학과 중국학에서는 전근대 언어와 근대 언어를 포함하여, 콘텐츠 수업에서는 역사, 문학, 철학을 다룬다. 문학에서도 장르와 시대별로 세분화된 수업이 거의 매학기 개설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학에서는 전근대 역사, 근대 역사, 문학 수업이 각각 하나씩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 문학과 영화, 한국 문학과 식민지 근대 수업이 학기별로 번갈아 개설되었다. 북미 지역으로 한정시켜 보면 30개가량의 대학이 한국학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⁹⁾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¹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¹¹⁾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¹²⁾

8) 논의의 편의상 이 논문에서는 캐나다와 남미를 제외한 미국 소재 대학을 다룬다.

9)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학부. <https://www.registrar.ucla.edu/Academics/>

10)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학부. <https://dornsife.usc.edu/ealc/>

Arizona State University,¹³⁾ University of Chicago,¹⁴⁾ University of Michigan,¹⁵⁾ Columbia University¹⁶⁾ 이상 8개 대학을 중심으로 2017년도-2018년도에 제공되는 한국학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⁷⁾

〈표 3〉 미국 8개 대학의 한국학 수업¹⁸⁾

과목	세부 분류 (건수)	과목명
역사	통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story of Korean Civilization - Korean Cultur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 Korean Culture & Society - Women of Korea - Introduction to the Civilizations of East Asia-Korea - Introduction to Korean Civilization

- 11)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학부
<http://ealc.berkeley.edu/courses/listing/fall-2018-2/>
- 12)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학부. <http://www.hawaii.edu/eall/>
 역사 수업도 개설되나 비정기적인 것으로 보인다.
- 13) Asian Research Center. <https://car.clas.asu.edu/content/asia-related-courses/>
- 14) East Asian Language & Civilizations. <http://ealc.uchicago.edu/courses/>
- 15)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학부. <https://lsa.umich.edu/asian/undergraduates/>
- 16)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학부. 2018년도 가을학기 자료이다.
- 17) 한국학프로그램이 있는 미국의 대학 리스트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Korea'로 검색하면 대략 23개가 나온다.
[http://www.asian-studies.org/Jobs-Professional-Resources/Asian-Studies-Programs-and-Centers-States/](http://www.asian-studies.org/Jobs-Professional-Resources/Asian-Studies-Programs-and-Centers/Asian-Studies-Programs-and-Centers-States/)
 최경희와 존 프랭클 (John M. Frankl)의 연구는 북미대학에서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의 위치를 보여준다. 최경희, 『쟁점: 한국문학의 해외 수용; 북미 학계의 한국문학 수용의 맥락 지역학 번역: 경계 횡단』, 『안과 밖』 31, 2011, 94~113쪽. 존 프랭클, 『새로운 시작: 북미대학의 한국문학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155~169쪽.
- 18) 동일한 이름의 과목은 중복 기재하지 않았다. 이상의 8개 대학은 5년~10년 이상 한국학 관련 수업을 개설해 온 대학이다. 위의 자료가 미국 대학의 한국학 수업 현장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고전 문학의 위치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차후로 영어권 국가를 포괄하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겠다.

	<p>전근대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llectual History of Premodern Korea - History of Korea through 1259 - History of Korea, 1260 through 1876 - History of Korea since 1876 - Society of Choson Korea 1392-1910
	<p>근대~현대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4 Kabo Reforms: History at Crossroads of Civilizations - Women in History: Modern Korea - Topics in Modern Korean Cultural History - Intellectual History of Modern Korea - Introduction to Modern Korean Historiography - Korea and Vietnam: Comparative Modern Histories - Modern Korea History - The Korean War - Contemporary Controversies of Korea
<p>대중문화</p>	<p>근대~현대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n Wave: Globalization of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 Introduction to Korean Cinema - Introduction to Korean Film - Hallyu, the Korean Wave - Topics in Korean Visual and Cultural Studies - History and Memory in Korean Cinema - Korean film & Literature - Popular Culture and Korean Society - K-Pop and Beyond--Popular Culture and Korean Society - Love in Korean Literature and Cinema - Film Culture in Korea - Korean Popular Cinema
<p>문학</p>	<p>전근대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n Folklore -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Classical - Introduction to Premoder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 Introduction to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 Korean Lit in Translation
	<p>근대~현대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ding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 Contemporary Korean Culture through Literature and Film -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Modern -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 Modern Korean Fiction -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 Gender and Sexuality in Korean Literature and Film¹⁹⁾ - Introduction to Modern Korean Literature - Censorship in East Asia: The Case of Colonial Korea - Major Author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ics and Issue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 Modern Korean Literature - The Korean War in Fiction and Film - Translating Korean Poetry - Korean Literature and Film
종교 및 기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to Korean Religions - Popular and Folk Religion in Korea - Education and Society in Korea - Reading Korean Cultural Landscape - Korea West Encounters - Topics in Korean Christianity - Korean Buddhism - Religions of Korea -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Korean Religions - Dystopia vs. Utopia in Korea - Gender and Nationalism in Korea

미국에서 개설되는 한국학 수업은 대부분 언어 중심이며, 콘텐츠 수업의 경우 그 수가 한국 근대 역사, K-pop과 영화를 포함한 대중문화, 근대 문학, 전근대 역사, 전근대 문학 수업 순서이다. 대학원 과정도 비슷하게 현대 문화에 치중되어 있어 전공자의 배출도 이런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대중문화의 경우 전공자가 아직 많지 않으나 최근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출판물과 수업이 증가하고 있다.²⁰⁾ 한국학 수업을 가장 다양하게 제공하는 UCLA의 경우 역사학과 문학 수업이 20세기 이전과 근현대로 나누어 제공된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한국 고전 문학 수업에서는 미

19) 수업 제목이 문학과 문화가 걸쳐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목 소개를 통해 근접한 분류에 넣었다.

20) 대중문화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학계에서 급성장한 분야이다. 아마존에서 한국대중문화(Korean popular culture)로 검색하면 2009년을 기점으로 100건 이상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2005년에 실시한 북미에서의 한국학 수업에서는 대중문화가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문학 수업과 비등할 정도이다. 2005년 자료는 박혜주 외, 『해외 한국학 대학 문학교재』, 한국문학번역원, 2005, 15~26쪽 참고.

국 대학의 출판사에서 출간된 *Early Korean Literature: Selections and Introductions*²¹⁾을 포함한 선집이 사용되고 있다. 선집은 대부분 짧은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어 번역과 함께 해당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학생과 고전 문학 전공자가 아닌 연구 강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²²⁾ 하지만 널리 사용되는 선집 및 작품집의 수는 적어서 많은 연구 강의자들은 교재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²³⁾ 주요 8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고전 문학 수업의 수는 <표 3>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5과목 정도인데, 한국 고전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강의자가 가르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²⁴⁾ 이런 경우 비전공자가 이해하고 교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한 배경 지식이 갖추어진 출판물이 필수이다. 또한 중국 및 일본 문학 학습자가 한국으로 학문의 폭을 확대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한국고전문학 소개를 강화한 번역서는 필요하다.

2) 한국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 문학 수업

한국 내 증가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요를 볼 때 한국 고전문학 영어 번역본의 국내 수요도 고려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연도별 유학생 현황을

21) David R. McCann, *Early Korean Literature: Selections and Introduc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Peter H. Lee의 *한국문학통사(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도 널리 쓰이나 연구서는 본 논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Peter H. Lee,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2) 한국어로 쓰여진 출판물은 사용이 어렵다. 이유에 대해서는 박혜주 외(2005), 앞의 책, 55쪽 참고.

23) 박혜주 외(2005), 앞의 책, 54쪽에 나온 John B. Duncan 언급 참조.

24) 일본학이나 중국학 교수들이 한국학을 가르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한국과 미국의 차이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 쓰는 문학 단행본 및 선집은 설명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면, 2017년 기준 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6,926명에서 2011년 39,02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28,919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7년 현재 최고 인원인 42,371명으로 집계된다.²⁵⁾ 출신 국가로는 중국인 유학생이 72.3% (30,650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7%(1,977명), 일본 2.8%(1,167명), 미주(미국, 캐나다 등) 2.4%(1,017명), 몽골 2.3%(981명), 대만 1.9%(7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사회 계열이 53%, 인문계열이 15%, 공학이 13%, 예체능계열이 11%, 자연계열이 6%가량이다.²⁶⁾ 대부분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로 교육받지만 한편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해 영어로 모든 수업과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영어강의를 대학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이자 유학을 희망하는 국내 학생들의 국내 대학 유치이다. 박영동은 국내 영어 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게 하려는 것은 국제적 규격에도 합당하지 않고, 또 실용적으로도 어려운 한국어를 수강할 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의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비록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국제적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²⁷⁾ 영어 수업으로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있으며 연세대학교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UIC)의 국제학부에는 아시아학 (Asian Studies Division)이 있다. 대부

2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편, 『2017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18, 74쪽.

http://cesi.kedi.re.kr/post/6663497?itemCode=04&menuId=m_02_04_01

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편(2018), 위의 글, 74쪽.

27) 박영동, 『대학 전공과목의 영어 강의의 현황과 그 개선 방안』, 『대학교육』 1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no=4049/>

분의 대학에서는 1-2학년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 및 전통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수업을 제공한다. UIC의 2018년도 1학기에는 Modern Korean History가 2과목 제공되고, Media and Popular Culture 가 1과목, 그 밖에 Topics in Literary Translation, Modern Korean Literature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대학 국제학부 글로벌 한국학전공에서는 General Introduction to Korea,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Introduction to Modern Korean Literature, Korean Cultural Heritage,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and Tradition를 제공한다. 국내 과정에서는 한국 전통 사회에 비중을 비교적 많이 두기 때문에 수업의 숫자로 본다면 북미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의 고전문학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오는 외국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상으로 한 교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⁸⁾

이제까지 한국 문학 번역은 대체로 번역의 양(量)과 질(質)에 중심을 두어 다양한 언어 번역과 고른 장르별 번역을 추구하였다. 번역출판물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고전문학 영역(英譯)서 현황 집계, 번역의 문제, 차후 영역서의 방향을 다룬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오윤선의 연구²⁹⁾는 <임진록> 및 <한중록>등 대표적 영역서의 구조와 번역의 오류, 영역 대상의 선정과 방향에 관한 문제들을 논하였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번역문 자체에 대한 검증과 번역 방향에 중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영어번역에 관한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

28)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한문학 번역 수업이 개설되고 있다.

29) 오윤선, 『한국 고소설 영역본으로의 초대』, 지문당, 2008.

30) 한국문학번역원 외, 『제 6회 세계 번역가 대회: 한국문학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문학번역원, 2014. <https://www.ltikorea.or.kr/ebooks/m/pdf/award/6.pdf/>. 이외에도 영역(英譯) 한국문학사를 다룬 정혜경, 전성운, 윤혜준 등의 연구가 있다. 이

력으로 현재 작품의 번역 자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³¹⁾ 한편 번역 외에 출판물이 갖추어야 할 부분을 지적한 연구도 있으나 비교적 단편적이었다. 그리고 중국학이 한국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제외한 나라의 자료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교재에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논하지 않았던 바,³²⁾ 본고에서는 작품의 번역보다는 출판물의 구성을, 문학 장르 전체보다는 한국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고전문학 연구 강 의자가 번역 및 편집하였고, 미국 주요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고등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수(複數)의 호의적인 리뷰가 미국 학술지에 실려 있고, 2000년 이후에 출판되어 유통되고 있는 저서 중에서 짧은 작품을 다룬 JaHyun Kim Haboush의 *Epistolary Korea: Letters in the Communicative Space of the Chosŏn, 1392-1910* (이후 *Epistolary Korea*로 표기)³³⁾, Ross King과 Park Sinae의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A Story Collection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이후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로 표기),³⁴⁾ 그리고 Sun Joo Kim과 Jungwon Kim의 *Wrongful*

연구는 영미권에서 고전문학 및 관련 학술서가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방안, 특히 외국인 독자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탐구한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본고는 고전문학 작품 영어 번역서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영역 한국문학사에 관한 의견은 논지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언급하고자 한다.

31) 최경희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경희(2001), 앞의 글, 103쪽.

32) 박혜주 외(2005), 앞의 책, 73쪽.

최경희(2001), 앞의 글, 105쪽.

33) JaHyun Kim Haboush trans., *Epistolary Korea: Letters in the Communicative Space of the Chosŏn, 1392 - 191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Deaths: Selected Inquest Records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이후 *Wrongful Deaths*로 표기)³⁵)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고전문학 영어 번역서의 구조 분석

북미권에서 한국 고전 문학은 소개된 기간, 연구자의 숫자나 출판물의 양과 질, 그리고 학계의 관심도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성장 단계라 할 수 있겠다. 번역 대상 작품은 장편 소설보다는 비교적 짧은 설화, 야담을 포함한 필기류와 단편 소설이 선호되는 편이다.³⁶ 신화나 설화는 비교적 번역 분량이 적어서 전문을 실을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읽으면서 설명할 수도 있다. 한편 『춘향전』, 『구운몽』같은 장편이 번역되기도 하였는데, 전체가 교재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선집에서 작품의 일부만 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설 작품들은 한 학기에 여러 작품을 다루어야 하는 교과과정에서는 다소 길고, 특히 삽입시 비중이 높은 작품은 글맛을 살리기 위해서 번역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비교적 길이가 짧은 서간문,

34) King Ross and Park Sinae ed.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A Story Collection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6.

35) Sun Joo Kim and Jungwon Kim trans., *Wrongful Deaths: Selected Inquest Records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4.

36) 1970-80년에 Nancy M. Cooper가 제시한 한국 문학 입문서 작품도 『천예록』 작품 중 일부와 야담, 시조를 포함한 짧은 작품이다. 대학생을 위한 작품 선집은 아니나, 한 나라의 문화가 소개될 때 단편 작품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Nancy M. Cooper, Multiethnic Literature in America: Korean Literature for American Students, *The English Journal* 69 (4), 1980, pp.100~103.

야담, 기행문을 번역한 중국과 한국의 서적을 살펴본다.

1) 소개글

고등교육의 강의 교재로서 외국 문학의 번역 출판물은 일반 번역 출판물과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된 번역 출판물³⁷⁾과 영어권 국가에서 발행한 강의용 번역 출판물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개글(Introduction)의 분량과 방향이다. 생소한 외국 문학이 영어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절하고 포괄적인 인내가 필요한데 소개글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³⁸⁾ 한국에서 출판된 영어 번역물들은 소개글이 짧아 대략 15페이지 안쪽이다.³⁹⁾ 예를 들어 *The Jehol Diary: Yŏlha ilgo of Pak Chiwŏn (1737-1805)*⁴⁰⁾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부분 번역인데 구성은 아래와 같다.

37) 한국에서 발행한 영어 번역서는 일반 독서를 위한 출판물과 학술서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38) 최경희(2011), 앞의 글, 104쪽. 안선재는 한국 역사와 전통에 대한 소개말을 첨부하는 것이 유용함을 밝혔다. An Sonjae, "Literary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English: A Study in Criteria," *Translation and Literature* 11(1), 2002, p.78.

39) 『한중록』의 1980년 영어 번역과 Jahyun Kim Haboush의 1996년 번역을 비교한 내용은 김유미, 「북미 대학에서 한국 고전문학 강의와 교재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58, 한국한문학회, 2015, 333~335쪽 참고. 영어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문 한국문학사를 다룬 논문에서도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설명과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다. 전성운, 「영문판 한국문학(사)의 서술 양상과 특징」, 『어문논집』, 중앙어문학회, 2013, 467쪽.

40) Yang Hi Choe-Wall trans., *The Jehol Diary: Yŏlha ilgo of Pak Chiwŏn (1737-1805)*, Folkestone: Global Oriental, 2010.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았다.

〈표 4〉 *The Jehol Diary: Yölha ilgo of Pak Chiwön*의 구성

내용	목차	페이지(아라비아 숫자) ⁴¹⁾
	Acknowledgements	xi (11)
줄임말	Abbreviations	xii (12)
참고자료	Conversions for Units	xiii (13)
소개글	Introduction	xv (15)
미주	Notes	xx (20)
지도	Map	xxii (22)
번역	Chapters 1-3	1-200

미국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박지원(1737 -1805) 작품의 세심한 원문 번역이 돋보이는 이 번역서는 북미식 틀을 따랐지만 소개말 부분은 6페이지에 불과하여 매우 짧다. 열하일기의 창작 시기인 18세기에 대한 설명, 열하일기의 다른 판본, 3개로 나누어진 각 챕터를 한 단락씩 짧게 설명하고 있으며 박지원의 여정을 두 페이지에 걸쳐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북미에서 박지원의 작품은 <양반전>, <허생전>을 중심으로 단편 소설만 번역되어 선집에 소개되어있는 상황을 볼 때, 박지원의 작품 세계나 작가적 위상, 조선-청나라 관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영어권 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03년에 나온 『징비록』의 영어번역인 *The Book of Corrections*⁴²⁾은 꼼꼼한 번역으로 한국 고전 문학 번역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소개말은 14페이지이다.⁴³⁾ 이 책의

41) 영미권 출판물의 쪽매김은 본론 이전에는 로마자 숫자를 써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된 것은 출판물의 쪽수 그대로를 표시한 것이다. 아래의 표도 마찬가지로 표기하였다.

42) Choi Byonghyon trans. *The Book of Correctio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Berkeley, C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2002.

43) 현재까지 번역자가 주로 영문학을 전공한 교수진이었던 점도 소개글에 중심을 두지

독자는 임진왜란의 동아시아사적 의의나 조선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만 할 것이다. 임진왜란은 한국사에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전쟁이고 『징비록』에는 다수의 인물이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물론 작품의 가치를 미리 파악한 독자가 꼼꼼히 읽기를 결심한 경우 본문에서 제시한 상당량의 주석을 통해 등장인물과 사건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용 번역을 읽기 전에 등장하는 머리말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작품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바 주석에만 오롯이 의존하기는 아쉬운 점이 있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한국 문학 전공을 제공하지 않는 대학이 대다수이고 동아시아의 구성 국가로서 학제간 연구의 대상이다. 동아시아학 수업은 원문을 읽고 해독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해당 작품의 번역을 읽어서 동아시아 문화학을 연구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⁴⁴⁾ 중국 고전 문학 수업의 경우 현대 중국어나 중국 문학에 대한 지식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처럼 한국 고전 문학 수업도 문학 전공자나 한국학 전공자가 아닌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이 읽을 수 있고 한국고전문학 전공자가 아닌 연구 강의자도 사용할 수 있는 소개글이 필요하다.⁴⁵⁾ 일반적으로 작품에 대해 선(先)지식이 없는 독자의 경우 소개글을 내용보다 먼저 읽게 되는데 이러한 소개글이 지

않았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번역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문학 연구자와 한국 고전 문학 연구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징비록』과 같은 Korean Research Monograph 시리즈이며 17세기 소설작품인 『운영전』번역은 63페이지 가량을 작품 소개와 주변 정보 제공에 할애하였다. 번역자인 Michael J. Pettid는 미국의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이다.

44) 신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미국대학에서의 한문 교육」,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103쪽.

45) 신지원(2014), 위의 글, 86쪽.

적인 흥미를 돋우고 해당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소개글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미국의 한국문학 뿐 아니라 미국 주요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동아시아 문학 번역서의 전반적인 경향이다. 예를 들어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에서 출간한 중국 『서상기』의 번역서인 *The Story of Western Wing*은 전체 290페이지 가량에서 서론에 100페이지 가량을 할애하고 있다.

〈표 5〉 *The Story of Western Wing*의 구성

내용	목차	페이지
소개글	The Status of Wang Shifu's <i>Story of the Western Wing</i> in Chinese Literature	3
	Author and Authorship	19
	The Pedigree of the Materials	29
	Exceptions to the Rules	42
	An Introduction to the World of The Western Wing	52
번역	An Introduction to the Story of Oriole Cue and Student Zhang	107
	Eight Satirical Songs Against The Western Wing	110
	The Story of the Western Wing 1	114
	The Story of the Western Wing 2	189

총 106페이지의 소개글에서는 『서상기』의 작가와 전통 시대 문학의 작가 개념, 작품의 계보와 특징, 내용 소개 통해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와 중요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19세기 이전 중국의 여행기를 번역한 *Inscribed Landscape: Travel Writing from Imperial China*⁴⁶⁾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46) 이 책은 유종원(773-819), 소식(1037-1101), 원굉도(1568-1610) 등 50명의 여행기가 실려 있는데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번역과 친절한 문화 설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Richard E. Strassberg, tr. *Inscribed Landscapes: Travel Writing from Imperial China*. Berkeley, Los Angeles,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표 6〉 *Inscribed Landscape: Travel Writing from Imperial China*의 구성

내용	목차	페이지 (아라비아 숫자)
참고	Editorial Notes	xiii (13)
소개글	The Rise of Chinese Travel Writing	1
번역	1.Ma Ti Po (n.d.) -- 50. Kung Tzu-Chen (1792-1841)	57
미주	Notes	423

20세기 이전 중국 여행기가 중국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징을 『산해경』(山海經)에서 출발하여 진, 한, 당, 송, 원, 명, 청에 이르는 왕조의 대표적 작가별로 설명하고 있어 19세기 이전의 중국의 문화를 살펴보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56페이지의 소개글에서는 *The Travels of Mendes Pinto* (1614)를 포함한 서양의 유명한 여행기를 소개하면서 국외 여행을 묘사하는 것이 서양 여행기의 특색임을 밝혔다. 이와는 달리 중국 여행기는 국내 여행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소개글 분량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Inscribed Landscape*의 역자는 50명의 작가에 대해서도 소개를 따로 달았다.

다른 예로 *Epistolary Korea*는 소개글과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Epistolary Korea*의 구성

내용	목차	페이지
	Acknowledgements	xi
참고	Explanatory Note	xiii
소개글	The Epistolary Genre and the Scriptural Economy of the Chosŏn	1

번역	1. Public letters	17
	2. Letters to colleagues and friends	171
	3. Social letters	219
	4. Family letters	249
	5. Letters written away from home	315
	6. Deathbed letters	353
	7. Letters to the dead	393
	8. Fictional letters	413

목차만 보았을 때는 소개글이 16페이지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8개 챕터가 다시 5개-9개의 소(小)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각 소챕터가 소개글과 번역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주(主) 소개글인 Introduction 말고도 총 40편 가량의 소챕터에 딸린 40개 이상의 소(小)소개글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우(親友)와 동료의 편지(Letters to Colleagues and Friends) 챕터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8〉 “Letters to colleagues and friends” 챕터의 구성

	소챕터	소개글 페이지	번역문 페이지
1	Correspondence Between Scholars: Political Letters	171-177	178-181
2	Scholarly Letters	184-187	187-189
3	Friendship Between Men	191-193	193-195
4	Friendship Between Women: One Man's Consort	197-200	201-202
5	Friendship with Foreigners	204-207	207-214

하나의 소(小)챕터가 대략 3-5편의 비교적 짧은 편지를 다루고 있으며 딸린 소개글은 편지 번역의 분량에 비해 1.3-2배 이상 많아 소개글 분량이 본문보다 많다. 특히 번역한 연구자의 관심 분야인 전통 시대 한국의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여성 생활 연구에 필

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소개글에서는 영어권 국가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명이나 사건을 포함한 고유 명사를 최대한 지양하였다. 소(小)챕터 ‘칙령’ (Royal Edicts)의 소개글 첫 단락은 아래와 같다.

Royal edicts in which the ruler addressed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country were arguably the most public and widely disseminated of massive in dynastic Korea. The practice of issuing royal pronouncements is recorded very early in China, as early as the ear of the classics (the seventh and sixth centuries B.C.E.). The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adopted the practice sometime during the Three Kingdom period (trad. first century B.C.E.-668 C.E.), and it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dynastic era. In earlier periods, the practice of promulgating royal edicts was mostly limited to such momentous occasions as royal accessions, the subjugation of rebellions, and so forth. King Sinmun of Silla's promulgation of his accessions, King T'aejo of Koryŏ enthronement proclamation, and his royal edict issued just prior to Koryŏ's (918-1392) annexation of Silla (trad. 75 B.C.E.-935 C.E.) are some well-known early examples.⁴⁷⁾

소개글 첫 단락에 등장하는 고유명사는 삼국 시대, 고려, 고려 태조, 신라, 신라 신문왕으로 인물과 나라 이름이다. 인물인 경우 생몰/재위년, 나라는 지속 시기를 표기하였다. 한국 재단의 지원으로 나온 번역서는 대체로 사상이나 개념에 관한 고유명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 한국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난해하다. 앞서 살펴본 *The Jehol Diary: Yŏlha ilgo of Pak Chiwŏn (1737-1805)*의 소개글은 첫 단락에 북학파, 실학, 이용후생 등 개념에 관련한 고유명사가 다수 등장한다.

47) JaHyun Kim Haboush (2009), *ibid*, p.17.

The *Jehol Diary* is Pak Chiwŏn (1737-1805) account of his journey to Jehol, the imperial summer residence during the Qing dynasty in China. Pak Chiwŏn was an acclaimed writer and a social reform advocate of the late Chosŏn dynasty in Korea. He was a key member of the Northern School of Learning (*Pukhak-p'a*), whose utilitarian philosophy was based on *iyong husaeng* (profitable usage and public benefit). The Northern School of Learning is one of two schools of thought among *Sirhak* School (Ch. *Shih hsueh*,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scholars, which became the dominant intellectual current of late Chosŏn between mid-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⁴⁸⁾

선(先)지식이 없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학파’(北學派)에 대한 개념 설명은 ‘실용주의 철학’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용후생’(利用厚生) 및 ‘실학’(實學)이라는 생경한 용어가 연이어 나와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설명을 참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준다. 물론 위 용어는 박지원 작품의 설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나, 일단 첫 단락에서는 조선과 중국 청나라에 대한 소개와 두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적지 않을까 여겨진다. 포괄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점에서 시작하여 심도 있는 비평문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pistolary Korea*의 소개글은 한국 고전 문학을 설명함에 있어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서간(書簡) 장르의 개념, 서간이 생산 및 전달되는 공간에 대한 설명,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남녀 성역할, 한자와 한글의 생성과 유통, 문자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한글과 한자에 대한 정보는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 문학 번역서에서 필수적인 정보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

48) Yang Hi Choe-Wall (2010), *ibid.*, xv.

시키기 위해 중국의 편지 문화와 서양의 편지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근사한 예로 19세기 조선 시대의 8건의 소송 사건과 판결문을 다루고 있는 *Wrongful Deaths*가 있다. *Wrongful Deaths*에서는 22페이지의 소개글과 함께 각 챕터별로 소개글을 달고 있다. 본문 번역 내용은 5-7페이지 정도이고 해당 소송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딸림 소개글이 4-5장 정도여서 총 65페이지 정도가 소개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Wrongful Deaths*의 구성

내용	목차	페이지
참고	Map of Nineteenth Century Korea	2
소개글	Chosŏn Korea in Its Last Century	3
번역 & 소개글	Case 1 An Adulterous Widower Meets a Violent Death	23
	Case 2 A Family Activist Confronts a Local Magnate	47
	Case 3 A Defiant Slave Challenges His Master with Death	55
	Case 4 Two Widows Fight Madam Chang and Ms Ŭn	62
	Case 5 A Heartless Wet Nurse Abuses an Infant Mun	72
	Case 6 A Widower Seeks Private Settlement	99
	Case 7 Adultery Leads to Murder	108
	Case 8 An Illegal Burial Begets a Son but Kills a Relative	129
미주		205
색인		227

이 소개글을 통해 독자는 19세기 조선 사회와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인에게 죽음으로 맞선 대담한 종’ 이야기 (A defiant slave challenges his master with death)는 천민 이봉돌이 설치해놓은 양식장에 양반 신필호가 그물을 놓자 이봉돌이 그물을 건어버리고 무례한 말로 신필호를 욕보이고 떡살을 잡은 사건을 소개한다. 분개한 신필호가 이봉돌의 집에 찾아가 간장독을 깨 버리고 이에 격분한

이봉들은 자살한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누가 그물을 설치했나는 작은 문제이며, 천민이 양반의 떡살을 잡고 욕을 한 처사가 더욱 심각한 점이라고 지적했으며 양반 신필호는 장독을 깨뜨린 점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았다. 해당 챕터의 소개글에서는 양반과 천민이 존재하는 조선 시대 사회 계급을 설명하고 당시 법이 사회 질서와 계급간 차별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음을 지적한다. 조선 후기의 경제변화가 가져온 양반 신분의 매매와 지방 거주 양반의 빈곤화에 대한 윌리엄 쇼 (William Shaw)의 연구를 들어 조선 전기에 비교적 굳건했던 계급간 사회 질서가 18-9세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⁴⁹⁾ 그리고 양반과 천민 사이의 계층 질서가 조선시대에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사회적 의미를 제시한다. 한편으로 마구잡이로 권세를 부리는 양반들을 누르기 위한 판결도 있었음을 밝혀 조선 시대 사법 절차와 사회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필자는 소개말에서 당시 조선의 생활상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천민 이봉들의 죽음을 야기한 양반이 받은 죄목은 봉들의 집에 들어가 간장독을 깨부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간장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원’⁵⁰⁾이라는 점을 밝혀 간장독을 부순 일이 일반 재물 손괴보다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를 보여주었다. 조선 시대의 신분 질서, 시대 변화, 사법 제도의 적용, 식(食)문화에 대한 설명은 한국 독자를 위해서라면 크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영어권 독자가 자세한 소개글을 읽

49) “a by-product of economic changes” that enabled no elites to purchase *yangban* titles and to imitate the *yangban* lifestyle while some local *yangban* fell into poverty and could not maintain their decorum and way of life,” Sun Joo Kim and Jungwon Kim, *ibid.*, p.55.

50) “The offended yangban invaded Pong-dol’s home after failing to catch him and broke jars containing precious preserved sauces, a critical source of nutrition for Korean people all year long,” *Ibid.*, p.55.

지 못했다면 이 번역은 흥미가 아닌 수많은 궁금증을 남겼을 것이다.

제임스 게일 (James Scarth Gale) 이 번역한 『기문총화』를 다듬은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A Story Collection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이후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로 표기)은 야담을 영어로 번역한 예이다.

〈표 10〉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의 구성

내용	목차	페이지(아라비아 숫자)
	Acknowledgements	xiii (13)
소개글	Translating to Inherit: An Introduction to James Scarth Gale's Translations from the <i>Kimun ch'oghwa</i>	xv (15)
	Further Contextualizing the Translations of James Gale	xxxvii (37)
참고문헌	Works Cited	lv (55)
참고자료	Table of Translation Equivalents	lxiii (63)
번역	Stories	3-618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에서는 『기문총화』와 원전 번역가 제임스 게일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문체의 특징을 50페이지의 소개글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사회문화배경으로는 전근대 한국에서 한자의 도입, 사용, 한글 창제와 사용, 한자/한글의 사회적 위치와 사용자에 대해 소개한다. *Epistolary Korea*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통 시대 문학을 다루는 출판물의 소개글에는 한자와 한글의 역사와 사회적 위상을 해당 장르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부분이 빠지지 않는다.⁵¹⁾ 또한 영어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편지 및 야담 문학 장르의 정의와 특징을 설명

51) Literary Chinese로 번역되는 한문은 ‘고대부터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에서 쓰였던 의사소통 수단인 글말’로 설명한다. (신지원(2014), 앞의 글, 86쪽.)

하기 위해 중세 유럽의 야담의 소개와 함께 필사본 장르의 특징인 상호 텍스트성과 야담 장르의 생성, 유통, 소비에 대해 설명으로 한국 야담이 가진 동양적 특징을 설명한다.

소개글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자와 한글의 사회적 위상, 한국의 문학 장르에 대한 전반적 설명, 작품 창작 시기에 대한 정보, 작가 소개와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 작품 원전에 대한 소개와 원전의 문학사적 위치, 작품에 대한 비평적 견해가 필요하다. 비평적 견해에는 작품이 가지는 한국 문학으로서의 특징, 동아시아 문화로서의 특징을 설명하되 서양 문학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선행 연구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독자의 심화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목적을 감안하여 쉬운 부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심도 있는 비평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2) 주석 및 참고 자료

주석(Notes)은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거나 본문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번역서에서 각주가 가지는 한계도 분명하지만,⁵²⁾ 주석에서 보충설명을 제공하는 내용 주(註)를 살펴보면 한국 문학의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한국 문화의 동아시아적 성격을 보여주고 문학 작품의 성격이나 특징, 작가들의 문학 세계를 보여주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⁵³⁾ 한국에서 나온 번역본은 주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해가

52) An Sonjae (2002), *ibid.*, p.78.

53) 신지원은 미국 대학에서 한문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의 선택이나 강의 자체에서도 한문의 문화적, 국제어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책처럼 주석을 달아주고 그 주석에서도 문법적 설명 외에도 사회 문화적인 설명들이 첨부되게 되면 한국 한문의 성격이나 특징, 그리고 문장가

쉽지 않다. 모르는 단어는 한국어 사전이나 한문 자전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전통 시대 문화와 관련된 인물, 지명, 관직명 등의 특수 사전들은 아직까지는 항목이 빈약하거나 초보적인 면이 없지 않다.⁵⁴⁾ 또한 용어를 찾고자 해도 연구자나 출판물의 성격에 따라 같은 단어도 영어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의 경우처럼 용어 사전(Table of Translation Equivalent)을 첨부 자료로 넣을 수 있다.⁵⁵⁾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은 1999년 김동욱의 『국역 기문총화』의 주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주석을 개수와 어휘와 동일할 만큼 유사하다. ‘위타지계(尉佗之計)에 관한 주석을 보면 그 유사성을 알 수 있다.

〈표 11〉 ‘위타지계’에 대한 주석

출판물	내용
『국역 기문총화』	조타(趙佗)의 계책. 조타는 중국 진나라 말기 남해위로 있었으므로 위타(尉佗)라 일컬음. 조타는 진나라가 망하자 스스로 남월무왕(南越武王)이라고 칭하다가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자 남월왕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등 주변 세력이 약해지면 제왕을 칭하다가 주변 세력이 강해지면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는 계책을 썼음 ⁵⁶⁾
<i>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i>	조타의 계책이라는 뜻이다. 조타는 위타(尉佗)라고도 불리는데 그가 진나라(기원전 221-206) 남해 지방에서 무관인 위(尉)였기 때문이다. 진나라가 무너지자 조타는 스스로를 남월의 무왕이라고 일컬었다. 유방(재위 기원전 202-195; 생몰 기원전 256/247-195)에 한나라(기원전 206-기원후 220)를 건국하자 조타는 한나라 조정에 자신을 남월의 왕으로 봉해달라고 하였다. 주변 세력이 약해지면 스스로를 제왕이라고 부르다가 주변 세력이 강해지면 신하가 되기를 청했다. ⁵⁷⁾

들의 인식적 창의적 세계까지도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지원(2014), 앞의 글, 104쪽.)

54) 신지원(2014), 위의 글, 104쪽.

55) King Ross, Park Sinae (2016), *ibid.*, lxiii-lxxi.

56) 김동욱, 『국역 기문총화』 2, 아세아출판사, 1999, 64쪽.

57) “尉佗之計: lit. ‘the ruse of Zhao Tuo [ca. 240-137 BC].’ Zhao Tuo 趙佗) is also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에는 『국역 기문총화』에 없었던 인물, 한국사 중요 사건, 문학 장르, 관직, 도량형, 년도 표시 등의 자료가 첨부되었다. 첫 번째로 한국 밖에서 생소한 왕실 인물에 대한 소개가 첨부되었다. 『국역 기문총화』 184화 <늙은 선비를 발탁하려다 소년을 급제시킨 성종>는 성종(成宗)에 대해 “성묘(成廟): 조선조 제 9대 임금인 성종(成宗)의 묘호(廟號)”⁵⁸라고 표기한 반면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에서는 “King Sǒngjong (1470–94 AD): refers to the years from 1469 to 1494, the reign of Sǒngjong”⁵⁹이라고 하여 성종의 재위년을 첨가하고 성묘(成廟)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야기 속 시간 배경임을 밝혔다. 또한 남해위(南海尉)에 대해 남해군의 무관 (military defender)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사 중요 사건을 설명하였다. 『국역 기문총화』 194화는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관련된 박엽(1570–1623)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국역 기문총화』는 “계해(癸亥)”를 설명하면서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난 1623년을 말함”⁶⁰이라고 한 반면,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은 “癸亥: 1623, the year of the Restoration of King Injo (Injo panjǒng 仁祖反正), involving the dethronement of Kwanghaegun 光

called Wei Tuo (尉佗) because he was a military defender (wei 尉) in Nanhai during the Qin dynasty 秦 [221–206 BC]. After the fall of the Qin, Zhao Tuo enthroned himself as King Wu of Nanyue (南越武王). When Liu Bang 劉邦 [r: 202–195 BC; 256/247–195BC] established the Han dynasty 漢 [206 BC–AD 220], Zhao Tuo pleaded the Han court for an investiture with the title of King of Nanyue. Whenever the constellation of forces around him grew weak, he would proclaim himself hegemon, and whenever those same forces grew strong, he would petition for investiture.” Sun Joo Kim and Jungwon Kim, *ibid.*, p.96.

58) 김동욱(1999), 앞의 글, 24쪽.

59) King Ross and Park Sinae(2016), *ibid.*, p.68.

60) 김동욱(1999), 앞의 책, 61쪽.

海君 [r: 1608-23; 1575-1641] and the enthronement of King Injo 仁祖 [r: 1623-49; 1595-1649]"⁶¹⁾로 설명하여 계해의 현대 년도 환산과 더불어 인조반정에 대해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의 등극을 가져온 사건으로 설명한다. 또한 주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는 생몰년, 왕의 경우에는 재위년과 생몰년을 예외 없이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시조와 가사 같이 현대 영어권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학 장르를 설명할 때는 해당 장르의 개념과 참고할 수 있는 상세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때 상세 자료는 영어권에서 나온 참고문헌이어야 하겠다.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에서는 시조와 가사를 설명하면서 Peter H. Lee의 연구서 해당 부분을 주석에 기재하였다.⁶²⁾

이 밖에도 주석이나 참고 자료(Editorial Notes)에 넣으면 유용한 자료가 있다. 관직명과 행정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Wrongful Deaths*에서는 양반이 아닌 인물 이봉운을 상대방이 ‘첨지’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첨지는 첨지중추부사의 줄임말로서 정삼품무관이다. 하지만 이봉운이 실제로 정삼품무관의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매관매직을 통해 직함만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⁶³⁾라고 주석에 설명하였다.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독자는 이봉운이 상당한 위치의 관직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촌(村), ‘분(分), ‘곡(斛)’ 등 도량형 단어는 로마자로 바꾸어 그대로 쓰되 서양식 환산 결과를 부가한다. 예를 들어 *Inscribed Landscape: Travel Writing from Imperial China*는 아래와 같은 표⁶⁴⁾를 첨부하여 길이 및 무게 단위를 현대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61) King Ross and Park Sinae(2016), *ibid.*, p.96.

62) “For detailing of *sijo* and *kasa*, see the glossary in Lee,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lvii, xxviii,” *ibid.*, xxxiii.

63) Sun Joo Kim and Jungwon Kim (2004), *ibid.*, p.212.

64) Richard E. Strassberg (1994), *ibid.*, xxii.

〈표 12〉 1리(里)에 대한 단위 설명 예시

Chinese Unit	U.S. Equivalent	Metric Equivalent
1 <i>li</i>	1821.14 feet (roughly 1/3 mile)	1.5 meters

*Wrongful Deaths*는 “한 섬=15말이나 20말=한 곡식을 세는 단위=89.464 혹은 119.285리터”⁶⁵⁾ 라고 설명했으며 길이 단위인 ‘척(尺)’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단위가 통일되지 않았다가 15세기 세종 시대에 와서 통일되었음을 밝히고, 시기별로 다른 척 단위의 길이를 각각 현대 도량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⁶⁶⁾

4.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세 종류의 한국고전문학 관련 번역물을 중심으로 영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외국문학으로서 한국문학 번역서를 만들 때는 매끄러운 번역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소개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여 양으로는 전체 분량의 30-50% 수준으로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번역서의 양보다 크게 확장시켜야 하며 내용은 해당 장르의 개념, 문학사적 위치, 동아시아 및 서양의 유사한 장르 및 개념을 통해 작품의 한국적 그리고 동아시아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맥 파악에 필요하며 비교적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풍습은 주석을 통해 소개한다. 번역물의 출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한국학에 생소한 독자의 눈으로 읽고 다시 쓰는 작업

65) “1 sǒm = either 15 or 20 mal = 1picul of grain by volume =either 89.464 or 119.285 liters” Sun Joo Kim and Jungwon Kim, *ibid.*, xiii.

66) *Ibid.*

이기에 내용 번역은 물론이요 소개글과 주석을 포함한 출판물의 구성까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 매우 번거롭고 공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고전 문학 작품이 잘 번역되었다. 이를 좀 더 유용한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과 틀을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개말과 주석을 중심으로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였다. 물론 분석한 세 출판물이 모든 부분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예시는 아니다. 예를 들어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은 한문 원문을 첨가했는데 이는 북미대학의 학부생 대상 수업에서는 크게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미 대학에서 한국 한문학 수업은 전무하며 한국어 수업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와 사자성어를 다소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⁶⁷⁾ 원문을 첨가하여 페이지가 630쪽 가량으로 늘어났는데, 원문이 없었다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북미 대학에서 중국학과 일본학 학부 수업에서 고전 언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볼 때 한국 한문학도 기대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문은 물론 현대 한국어, 한국의 지리적 위치 및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친절한 교재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자세하고 친절한 소개글을 위해서는 매끄러운 영어 번역의 질(質)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고전 문학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67) 신지원(2014), 앞의 글, 103쪽.

참고문헌

한국문학번역원 (<https://www.litkorea.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ksps.aks.ac.kr/hpjsp/hmp/bizguide/bizguide.jsp?bizCd=KCL/>)

Korea Research Monograph

(<https://ieas.directfrompublisher.com/highlights/korea-research-monograph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http://www.asian-studies.or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ttps://www.registrar.ucla.edu/Academic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ttps://dornsife.usc.edu/ealc/>)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ttp://ealc.berkeley.edu/courses/listing/fall-2018-2>)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ttp://www.hawaii.edu/eall/>)

Arizona State University

(<https://car.clas.asu.edu/content/asia-related-courses>)

University of Chicago (<http://ealc.uchicago.edu/courses/>)

University of Michigan

(<https://lsa.umich.edu/asian/undergraduates/asianlanguagesminor.html>)

An Sonjae, "Literary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English: A Study in Criteria," *Translation and Literature* 11(1), 2002, pp. 72-87.

Choi Byonghyon trans. *The Book of Correctio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Berkeley, C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2002, xi-p.249.

David R. McCann, *Early Korean Literature: Selections and Introduc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xi-p.192.

JaHyun Kim Haboush ed., *Epistolary Korea: Letters in the Communicative Space of the Chosŏn, 1392-191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p.1-448.

- King Ross, Park Sinae ed.,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A Story Collection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6, xv-p.630.
- Nancy M. Cooper, "Multiethnic Literature in America: Korean Literature for American Students," *The English Journal* 69 (4), 1980, pp.100-103.
- Peter H. Lee,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lxxvi-p.580.
- Richard E. Strassberg, tr., *Inscribed Landscapes: Travel Writing from Imperial China*. Berkeley, Los Angeles,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xv-p.580.
- Sun Joo Kim and Jungwon Kim tr. *Wrongful Deaths: Selected Inquest Records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4, xi-p.253.
- Yang Hi Choe-Wall tr., *The Jehol Diary: Yŏlha ilgo of Pak Chiuwŏn (1737-1805)*, Folkestone :Global Oriental, 2010, xxi-p.208.
- 김동욱, 『국역 기문총화』 2, 아세아문화사, 1999, 1~437쪽.
- 김유미, 『북미 대학에서 한국 고전문학 강의와 교재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58, 한국한문학회, 2015, 317~345쪽.
- 김지연, 『피터리의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의 의의와 한계』, 『고전과 해석』 20,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16, 207~239쪽.
- 박영동, 『대학 전공과목의 영어 강의의 현황과 그 개선 방안』, 『대학교육』 1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no=4049/>
- 박혜주 외, 『해외 한국학대학 문학교재』, 한국문학번역원, 2005, 1~303쪽.
- 신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미국대학에서의 한문 교육』,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85~106쪽.
- 오윤선, 『한국 고소설 영역본으로의 초대』, 지문당, 2008. 1~229쪽.
- 윤혜준, 『영어권 독자와 한국문학사: 피터 리의 『한국문학사』의 성취와 과제』, 『세계문학비교연구』 27, 2009, 87~109쪽.
- 전성운, 『영문판 한국문학(사)의 서술 양상과 특징』, 『어문논집』 53, 중앙어문학회, 2013, 453~483쪽.

- 정혜경, 『한국 고전문학 학술서 英譯의 실제와 방향-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8, 국제어문학회, 2013, 347~379쪽.
- 존 프랭클 (John M. Frankl), 『새로운 시작: 북미대학의 한국문학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155~169쪽.
- 최경희, 『쟁점: 한국문학의 해외 수용; 북미 학계의 한국문학 수용의 맥락 지역학 번역; 경계 횡단』, 『안과 밖』 31, 영미문학연구회, 2011, 94~113쪽.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편, 『2017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18, 1~134쪽.
- 한국문학번역원 외, 『제 6회 세계 번역가 대회: 한국문학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문학번역원, 2014, 1~223쪽.

ABSTRACT

The Issues in English Translations of Pre-modern Korean Literature

Kim, Youme

The number of publications on Korean studies has surged due to Korea's increased international exposure since around the early 2000s. While the number of studies on Korean literature also has shown noticeable growth regarding contemporary novels and poems translated into various languages, the field of pre-modern Korean literature has relied on a small number of scholars and publications. To expand the scope of pre-moder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enhance the readability of English translations of pre-modern Korean literary works by focusing on introductions and notes in *Epistolary Korea: Letters in the Communicative Space of the Chosŏn, 1392-1910*,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A Story Collection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and *Wrongful Deaths: Selected Inquest Records from Nineteenth-Century Korea*. This study selects the three publications above because they were translated and edited by pre-modern Korean scholars in the United States, who number very few but have devoted to themselves to make useful reading materials for students, published in US university presses, and received favorable reviews among scholars and students in general. The three translations commonly devote 30 - 50% of the total number of pages to the introduction, which guides reader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lated literary works in understanding Korea and neighboring East Asian countries. In addition, detailed and sufficient notes on Korea's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from an East Asian context help to catch readers' interest.

Key Words pre-modern Korean literature, *Epistolary Korea*, *Kimun Ch'onghwa*,

English translation, *Wrongful Deaths*

논문투고일	: 2018.07.20
심사완료일	: 2018.08.13
게재확정일	: 2018.08.24